

##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10]

### 내면적 표현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인도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필요한 이해 가운데 하나는 내면적 표현이다. 메시지를 듣는 참석자들의 내면세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자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염려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공부 현장의 참석자들이다. 바로 여기에 인도자의 신중함과 깊은 통찰력이 요구된다.

메시지 전달로서의 성경공부는 인도자와 참석자들간의 교류경험이다. 인도자와 참석자는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양자 사이를 서로 지탱해주는 관계와 접촉점이 없으면 메시지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도자가 참석자들의 허덕임과 슬픔, 기쁨을 가까이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내면적 아픔과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호소와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도자에게는 참석자들의 아픔을 감싸주려는 예민한 목회적 감각이 요청된다.

인도자에게 있어서 창조적인 경청은 성경공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참석자들의 내면세계를 밝혀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성경공부에 있어서 심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 성경공부 인도자가 참석자들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일이다. 참석자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성경공부가 진행되어서는 그들의 마음과 인격을 사로잡을 수 없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닫혀진 내면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인도자가 정성껏 메시지를 준비하여 숨을 몰아쉬며 전한다해도, 이것을 듣는 참석자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성경공부는 허공을 치는 소음뿐임을 알아야 한다. 인도자는 참석자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참석자들의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심리적 수동성에 오래 동안 길들여져 왔기에 그 결과 배우는 일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지 몇마디 말이라도 참석자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도록 무의식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석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적용하고 경험하게 된다. 오늘과 같이 자기를 숨기고 진실된 자아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시대를 살

아가는 참석자들을 인도자는 깊게, 정확하게, 폭넓게 이해하는 기술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자기와 상관 없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출처 : 은누리신문